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Reuters: 연준 보고서, “인플레 변동 없지만 미국인 경제 우려 커진다”
- WSJ: 이번 주 미 경제 지표 발표 일정
- WSJ: 트럼프, “경제 정책으로 고통 가능성”

[미국 금융]

- JP 모건: 체제 변화(Regime change)와 금융 여파
- Bloomberg: 관세와 침체 우려로 미 신용 리스크 상승
- Bloomberg: 침체 우려로 증시 계속 하락

[관세 정책]

- Reuters: 미 관세 혼란으로 북미주 3개국 경기 침체 리스크 상승
- CNBC: 트럼프, 기업들의 관세 정책의 명확성 요구에 “잘 모르겠다”

[물류]

- WSJ: 블랙록의 파나마 운항 일부 운영 소유권 확보, 중국의 영향력 줄여

[원자재]

- Bloomberg: 천연가스, 어떻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됐을까

[중국 경제]

- CNNBusiness: 중국, AI와 신형 산업 성장을 위한 첨단 기술 펀드 발표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NYT: 트럼프의 관세, 테슬라에는 ‘유리’ 경쟁사들에 ‘타격’
- CNNBusiness: CVS, 약국 전용 소형 매장 개점 예정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2025.2월)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Reuters: NY Fed: Worry over outlook increases amid stable inflation expectations

연준 보고서, “인플레 변동 없지만 미국인 경제 우려 커진다”

- 뉴욕 연준의 오늘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향후 인플레 예상은 변동이 없지만 미국인들을 2월 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뉴욕 연준의 소지자 예상 설문문에 따르면 인플레는 작년보다 3.1% 상승했고(1월 연율로 3% 증가), 반면에 향후 3년에서 5년까지의 인플레 전망은 1월 조사한 3%에서 변동이 없었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월에 미 가구들은 향후 1년간의 재정 상황에 대해 더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과 연체, 신용 접근 가능성이 크게 악

화되었다고 말했다.

Reuters 기사

WSJ: Oracle Earnings, Inflation, Consumer Sentiment: What to Watch This Week in Markets

이번 주 미 경제 지표 발표 일정

- 화: 연방 노동부의 일자리 공고 및 이직률
- 수: 2월 CPI(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25% 관세 및 알루미늄 발효
- 목: 2월 미 생산자 물가지수
- 금: 미시간대 3월 소비자 신뢰지수 임시치

WSJ 기사

WSJ: Trump Declines to Rule Out Recession

트럼프, “경제 정책으로 고통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미국 경제가 위축되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책 어젠다가 단기적으로 고통을 일으킨 후에 향후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폭스 뉴스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러한 예상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큰 변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 현재 그가 추진하는 것은 관세, 이민 제한 정책, 규정 완화, 일자리 축소와 감세다. 특히 연방 각종 프로그램의 축소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강한 미국 경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증시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두지 않는 발언을 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JP 모건: Regime change accelerating

체제 변화(Regime change)와 금융 여파

- 트럼프의 중국적인 목표는 체제 변화이지 단순한 관세와 협상 차원이 아니다. 즉, ‘아메리카 퍼스트’의 기반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경제 및 안보 질서를 만들었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제도들을 없애는 것이다.
- 관세는 세계질서를 개편하는 수단이고 더 많은 관세가 예고 되어있다.
- 글로벌 보복은 시작됐고 가속화될 것이다.
- 미국 기업들은 발표된 관세 조치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면서 보편 관세를 시행하거나 아시아 경쟁업체들에도 관세 적용이 확대되어 공평한 경쟁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 여러 나라의 경제 협정을 상징하는 ‘마라고 협약’이 당장의 우선순위로 보여지지 않고 있으며, 아시아 통화 가치의 하락은 가능성이 어렵지만 이론

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일본과 중국 같은 국가들의 미국 국채 만기 연장 (terming out maturities)은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 힘들다.

- 중국의 전략은 장기적인 대응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미·중 전략적인 관계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즉, 대타협, 암묵적인 협상, 부분적인 디커플링, 새로운 냉전, 실제 전쟁 등으로 보고 있다.
-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낳게 한다.
- 보다 광범위한 관세 도입과 USMCA 재협상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 시장은 지금까지 관세 위협에 안일한 입장을 보였다. JP 모건 경제팀은 트럼프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 관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미 인플레이션은 1%, 성장률은 0.5%~1% 줄 것으로 보고 있다.

JP 모건 기사

Bloomberg: US Credit Risk Rises as Tariffs, Job Cuts Stoke Recession Fears

관세와 침체 우려로 미 신용 리스크 상승

- 올해 신용 리스크 수준이 상승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관세와 연방 공무원 감원 등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용 리스크가 오르고 있다.
- 수많은 투자등급 채권 차입 기업들은 채권 발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 신용 리스크가 상승하면 수치가 커지는 이른바 Markit CDX 북미 투자 등급 지수는 2.06 베이스 포인트 늘어난 53.54를 기록했다.
- 신용 리스크가 높을 수록 오히려 수치가 감소하는 Markit CDX 북미 하이일드 지수는 0.5 포인트 감소한 106.4를 기록해 6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lumping Stocks Point to Mounting Recession Fears

침체 우려로 증시 계속 하락

- 미 증시는 미국 경제의 위축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입장으로 증시가 하락중이다.
- 따라서 투자자들은 고정 수입 안정자산인 국채를 매입하고 있으며, 국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 증시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오늘 월요일 오전 S&P 500은 1.99% 하락세를, 특히 나스닥의 경우 3.76%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관세 정책]

Reuters: Recession risks rise for all three North American economies over US tariff chaos

미 관세 혼란으로 북미주 3개국 경기 침체 리스크 상승

- 로이터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 따르면, 미 관세 정책의 혼란스러운 시행으로 기업체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불확실성을 겪는 가운데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경제의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
- 이미 올라가고 있는 미 인플레이 리스크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들 3개국의 침체 리스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설문 조사 결과는 밝혔다.
-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시행 발표를 한 후 지난주 목요일에 이를 다시 철회하고 있다.
-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향후 성장과 인플레이, 금리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이들 3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 74명 중 70명은 그들 자국의 경제 침체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Reuters 기사

CNBC: Trump rejects pleas from business for more clarity on tariffs: 'They always say that'

트럼프, 기업들의 관세 정책의 명확성 요구에 "잘 모르겠다"

- 트럼프는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기업들과 투자자들, 정책 결정자들인 관세 정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 "나도 향후 관세율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그는 "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관세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예측은 나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 한편, 연준의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정책들이 보다 명확할 수 있도록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물류]

WSJ: Panama Port Deal Plants U.S. Flag in China-Dominated Sector

블랙록의 파나마 운항 일부 운영 소유권 확보, 중국의 영향력 줄여

- 미국의 민간 투자기관인 블랙록의 파나마 운하 일부 운영 소유권 확보는 이곳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곳에 미국의 진출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블랙록은 지난주에 20개국에 달하는 45개 항만의 운영권 다수를 2백28억 달러 규모로 홍콩에 기반을 둔 CK Hutchison Holdings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특히 눈에 띄는 계약 내용은 파나마 운하 양 끝에 위치한 항만들이다.

- 이와 관련 트럼프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고 있다며, 세계 질서의 재편을 위해 이 같은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WSJ 기사

[원자재]

Bloomberg: How Natural Gas Became America's Most Important Export 천연가스, 어떻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됐을까

- 미국은 최근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트럼프의 2기 임기 동안 생산 능력을 60% 확대할 예정이다. 10년 이후 전 세계 LNG 운반선 중 3분의 1이 미국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트럼프는 미국산 LNG를 통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인도, 일본은 미국산 LNG 구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외교적 협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뉴욕대 교수 Amy Myers Jaffe는 평가했다.
- 미국산 천연가스는 유럽 평균가 대비 70% 저렴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 제조업 리쇼어링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에너지가 모든 경제의 기반”이라며, 이러한 경쟁력이 미국 경제에 큰 이점을 제공한다고 Veriten의 파트너 Arjun Murti는 평가했다.
- 현재 유럽과 아시아는 미국산 LNG에 의존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내로 다른 에너지 선택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LNG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러한 리스크는 주요 구매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 또한, 2030년까지 미국의 LNG 생산이 과잉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석탄과 재생에너지가 미국산 LNG보다 저렴하고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만큼, 향후 미국산 LNG의 수출 기회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CNNBusiness: China announces high-tech fund to grow AI, emerging industries

중국, AI와 신흥 산업 성장을 위한 첨단 기술 펀드 발표

- 중국은 AI, 양자 기술, 수소 에너지 저장 등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 '국가 벤처 캐피털 가이드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 이 펀드는 20년간 약 1조 위안(약 1,380억 달러)의 민관 자금을 유치할 예정이며, 미국의 기술 제한 속에서 자주적 기술 혁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한편, 중국은 '민간경제 촉진법'을 통해 민간 기업의 법적 권리 보호와 공정 경쟁 보장을 추진 중이다. 이는 3년간 지속된 규제 강화를 겪은 민간 기업의 신뢰 회복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NYT: Trump's Tariffs Could Help Tesla, by Hurting Its Rivals More 트럼프의 관세, 테슬라에는 '유리' 경쟁사들에 '타격'

- 테슬라는 미국 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공장에서 전량 생산해 경쟁사보다 관세 영향이 적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상대적 이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경쟁사는 25% 관세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한편, 중국은 테슬라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자 최대 생산지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테슬라의 중국 사업은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내 테슬라 공장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BYD 등 중국 현지 경쟁사들이 자율주행 등에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다.
- 테슬라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고순도 흑연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흑연에 대해 800% 이상의 관세를 요구하며 테슬라는 공급망 위협에 맞서 로비 중이다. 그 가운데, 트럼프의 무역 관련 발언에는 흑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다.

NYT 기사

CNNBusiness: CVS is opening smaller stores that only have pharmacies CVS, 약국 전용 소형 매장 개점 예정

- CVS는 기존 매장의 절반 크기인 소형 약국 매장 12곳을 올해 오픈할 계획이다. 이 매장들은 약국 서비스에 집중하고, 기존 소매 제품은 제외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 CVS는 1,000곳 이상의 매장 폐쇄와 수천 명의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이는 업계 경쟁 심화와 도난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조치다.
- 전문가들은 약국 전용 매장이 운영비 절감 효과는 있지만, 디지털 약국 시장 확대와 월마트 등 경쟁사의 압박이 여전한 과제라고 GlobalData Retail
- 의 분석가인 Neil Saunders는 지적했다.

CNNBusiness 기사

[보고서]

최근(2025.2월)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 미국경제는 25.2월중 소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심리지표도 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
- 시장금리(국채 10년)는 부진한 경제지표에 미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며 하락
- 연준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참가자들은 Powell 의장의 의회 보고, 1월 FOMC 의사록 등에 주목하며 연준의 금리인하가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트럼프는 "과도기"라는데... 커지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 S&P500 올해 고점 대비 6% 하락

미국 증시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경기침체(recession)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에 대해 예상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면서 "과도기(transition)가 있다"고 방어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